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11:00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
---

제 목 :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

---

□ 2016년 12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「2017년  
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

(붙임 참조)

---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이상형	Tel. (02) 759-4461
금융기획팀 팀장 김봉기	Tel. (02) 759-4491
조 사 국 조사총괄팀 팀장 김웅	Tel. (02) 759-4181
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팀장 변성식	Tel. (02) 750-6834
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팀장 김인구	Tel. (02) 759-4777
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팀장 이한녕	Tel. (02) 750-6635
국 제 국 국제총괄팀 팀장 서정민	Tel. (02) 759-5737

공보관 : Tel. (02) 759-4038, 4135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#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

2016. 12.

한 국 은 행

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 
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 
을 거쳐 공표합니다.

2016년 12월 29일

한 국 은 행  
총재 이 주 열

<한국은행법>

제6조(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)

-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.
-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-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## < 차 례 >

I .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

II .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

## 1. 경제성장

◆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

□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

○ 미국경제의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경제가 6%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원수출국의 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

□ 국내경제는 2%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

○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되겠으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

○ 성장세가 잠재능력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전망

□ 한편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

○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, 보호무역주의 확산,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도 큰 상황

○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

## 2. 물가

◆ 물가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

□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,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 축소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물가안정목표\*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

\* 2016~2018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기대비) 기준 2.0%

○ 다만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아 근원인플레이션을 등 기조적인 물가상승세는 2%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

□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의 움직임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

## 3. 금융·외환시장

◆ 금융·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및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
□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,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자본유출입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
○ 특히 신흥시장국의 금융·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국내로 파급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가능성

-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외환보유액 및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#### 4. 금융안정

◆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금융부문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상존

-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
  - 은행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완화되겠으나 기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등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  - 금리상승 또는 가계소득 악화시 저신용·저소득·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 애로가 증대될 우려
-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증가,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상·하방 위험요인이 혼재
- 금융기관 경영여건에는 가계부채 누증, 기업 신용위험 증가, 미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
  - 다만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
- ◆ 통화신용정책은 완화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영
  -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공표 등을 통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
- ◆ 금융·외환시장에 대한 동향 점검과 금융부문의 시스템 위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시 적극 대응

### 1. 기준금리 운용\*

\* 이번에 공표되는 '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'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용  
(<참고> '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' 참조)

- (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)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
  -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
    -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데 유의하면서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·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
    -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외에 근원물가, 각종 보조 물가지표\*, 기대인플레이션, GDP갭 및 고용·제조업의 유희생산능력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판단

\* 규제가격을 제외한 시장물가지표, 경기민감물가지표 등



- (금융안정에 유의)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,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
  - 자본유출입 동향, 금융·외환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, 가계부채 및 기업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

## 2.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

- (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공표)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수행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
  - 「한국은행법」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정책운용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,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등을 명시
  - 동 일반원칙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하고 매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시 이의 수정·보완 여부를 점검

### <참고>

#### **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**

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'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'하며, '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'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.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,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.

- **(물가안정목표제)**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,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기대비) 기준 2.0%이다.
  - **(중기적 운영 시계)**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,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·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,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.
  - **(미래지향적 운영)**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,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.
    -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,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.
  - **(신축적 운영)**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.
- **(금융안정에 대한 고려)**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다.
  - **(물가안정목표제와의 관계)**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.
  - **(금융안정 점검)**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·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.
  - **(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)**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.

- (의결문 기술방식 개선 및 보고서 공개범위 확대)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, 내용 등을 개선
  - 공표된 일반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의결문을 기술
  - 통화신용정책보고서,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
  - 국내외 금융·경제여건 변화의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방향에 대해 조사·연구를 강화하고 자료 발간 등을 활성화
    - 예: 인구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가 금융·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,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대응 방향,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방안 등
  
- (물가설명책임 이행)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 $\pm 0.5\%p$  초과 이탈하는 경우\* 총재 기자회견담회 등을 통한 설명책임을 유지
  - \* 이후  $\pm 0.5\%p$  초과 이탈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
  - 물가안정목표 이탈 원인, 향후의 물가전망 경로,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함으로써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화
  
- (금융통화위원의 커뮤니케이션 확대) 금융통화위원의 금융시장 참가자, 학계, 언론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확대

### 3.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

- (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성장세 회복 지원)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국내외 금융·경제상황,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
  -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,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
    -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
    - 고용 및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
  -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지원대상에 추가
- (대출제도의 합리적 개편) 그간의 금융·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·장기적 시계에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개편을 검토
  -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도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

### 4.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도모

- (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) 국내외 충격 발생에 따른 금융·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불안이 고조될 경우 안정화 대책을 적극 시행
  - 위험요인의 전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자본유출입 동향 및 금융시장 가격변수, 시장참가자 행태 등을 한층 더 면밀히 모니터링

- 금융·외환시장 불안시에 대비하는 비상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에 새로운 상황 변화를 적극 반영하면서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
  - 금리, 환율 등 가격변수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 쏠림현상이 과도할 경우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실시
    -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의해 금융시장에 일시적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
    - 정부와 협의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
  - 기일물 RP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와 함께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를 정비
- (커뮤니케이션 강화) 금융·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
- 시장정보 활동을 통해 입수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신속, 정확히 파악하고 그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는 한편 당행의 금융·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소통
  - 불안요인 발생시 「금융·경제상황 점검회의」, 「통화금융대책반 회의」 등을 즉시 개최하고 당행의 상황인식 및 대응계획을 보도자료,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
- (글로벌 금융협력 강화) 역내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
- ASEAN+3의 CMIM 기능 제고, G20의 IMF 대출제도 개선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하는 등 금융협력을 강화

## 5.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

- (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 강화)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
  - 금통위의 「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」를 강화하여 금융안정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「금융안정보고서」 등을 통한 조기경보 기능을 제고
  - 「가계부채 점검반」 운영 등을 통해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
  - 공동검사는 취약가계 및 한계기업 대출, 특정부문으로의 대출 쏠림 등 시스템 리스크 요인의 포착·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,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
  -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위원회(FSB),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,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(CPMI)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
- (지급결제인프라 확충·개선) 디지털 혁신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·개선
  - 국민편의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‘동전없는 사회’ 시범사업을 실시
  - 핀테크, 분산원장기술 등의 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지급수단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발행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추진

-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지급결제 지연 가능성 등 관련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
  
- **(지급결제 리스크 완화)** 지급결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소액결제망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전환 확대, 금융기관의 차액결제규모 축소 등을 추진
  - 금융기관의 결제편의 제고, 결제리스크 감축 등을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감시지침서 마련 등을 통해 선진화된 결제리스크 관리체계 구축
  
  -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하여 대출담보증권 인정대상 확대를 검토